



제목	이슬람교: 한눈에 보는 이슬람교의 세계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예경
발행일	2007. 9. 10.
저자	발터 M. 바이스 임진수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08
ISBN 또는 ISSN	978-8970843438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교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와 연관된 정치적 양상과 일상의례 그리고 문화를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한 책이다. 저자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슬람을 바라볼 때, 거대한 종교사라는 통일성을 발견하게 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나타난 정치적 발전의 다양성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과 주장은 서양 대중매체가 이슬람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단순화시키고 흑백논리로 접근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해당된다. 저자는 이러한 작업을 담은 이 책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신앙과 정신세계를 중재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슬람신앙의 기본입장에 해당하는 꾸란과 샤리아와 예언자의 전승 등을 연대기적인 설명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이 책은 이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견해들, 1년 단위 또는 일생의 의례에 관한 내용, 여성의 지위, 재이슬람화 경향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 창시의 배경을 다룬 '이슬람의 시작', 이슬람 신앙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다룬 '이슬람 신앙의 기초', 무슬림들의 일상생활과 의례 등을 소개하는 '이슬람의 생활', 이슬람의 한 그룹인 쉬아파의 기원과 분파들을 다룬 '쉬아파', 이슬람 초기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초기의 국가들', 아랍 문화 및 역사와 이슬람의 불가분의 관계를 다룬 '아랍 이슬람 문화의 번영과 '옛 아랍 도시의 생활양식', 이슬람세계를 위협한 몽고와 이슬람세계를 통일한 오스만제국을 다룬 '몽고와 오스만시대', 근대화 시기의 이슬람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하는 이슬람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슬람 세계를 조명한 '최근의 이슬람 세계'. 이 책의 뒷부분에는 용어 해설과 이슬람사 개관, 이슬람 관련 박물관과 컬렉션 등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